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慶南中同窓會報

발행·편집인: 鄭昭永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의3

골든오리빌딩 4층 411호

TEL: (051)245-7551~3, FAX: 245-7550

인쇄처: 釜山日報社

在別冊會—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북빌딩 504호
T: (02)783-0071~2 F: (02)783-0073

'98 龍馬의 밤 12월 11일 코모도호텔서

8회 용마대상 禹明洙(5회) 고문 선정

합
감
화
공

본부동창회 주최 「'98 용마의 밤」축제가 12월 11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코모도호텔 충무홀에서 전국의 동문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막된다.



매년 세모에 열리는 용마의 밤 축제는 동문들에게 새로운 각오와 우정을 넉넉히 심어준다. 사진은 지난 해 경남고 체육관에서 열린 행사 장면.

공적심사위 개최

제8회 용마대상(龍馬大賞) 수상자로 본부회장과 부산시 교육감을 지냈고 현 본부고문인 禹明洙(5회·부산예술문화대 학장)을 선정했다. 본부동창회 용마대상 심사위원회는 11월 20일 오후 6시 부산 동구 범일동 「대어초밥」에서 鄭昭永위원장(6회·본부회장) 주재로 후보공적심사위를 열고, 동문유대 강화와 조직 활성화에 앞장서고 모교 발전을 위해 헌신한 禹明洙를 올해 수상자로 확정했다.

동창회 최고 영예인 용마대상은 91년 제정, 매년 용마의 밤 행사에서 수여하고 있다(올해는 12월 11일).

수상자에게는 순금 행운의 열쇠와 상패가 주어진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鄭昭永위원장을 비롯해 趙大濟(7회·본부부회장·협성개발 대표) 朴同烈(8회·해운대성심병원장) 黃永善(9회·변호사) 吳剛旭(10회·남산곡산 대표) 崔得鎬(11회·본부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얼굴

영예의 용마대상 받은
禹明洙(5회) 고문

제8회 용마대상을 수상한 禹明洙(5회·본부고문)은 40여년간의 교직생활과 본부이사, 수석부회장, 동창회장 등을 지내는 동안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용마가족의 한 사람으로 손꼽힌다.

추진력과 포용력이 강한 禹明洙는 부산시 교육청 학무국장·모교 교장·경문회장·시교육감 등 일선 학사관리 책임자로, 교직원 친목단체의 수장으로 헌신하는 사이 용마가족의 응집력 확충에 남다른 열정을 쏟았다.

87년 3월~91년 2월 모교 교장 봉직시는 면학분위기 쇄신·교육환경 개선·야구부 중흥·특별활동 강화 등에 힘써 모교의 잠재력을 과시했다. 특히 4년제 대학 합격률을 「부산최고」로 향상시켰고 시청각교육시스템 개선 및 확충과 야구부의 전국최

전국 1천여 동문 재회 ... 새로운 도약 결의

鄭昭永본부회장(6회)이 주재하는 이날 행사는 개회선언에 이어 국민의례 교가제창이 있고 유공동문표창을 통해 동창회 최고의 영예인 제8회 용마대상(수상자 禹明洙고문·5회)을 수여한다.

특히 이날 축제에 앞서 오후 6시 임시총회를 열어 제1차이사회(6월 26

일)에서 의결한 회칙 제4조 제4항 「장학사업」을 「장학사업으로 재단법인 용마장학회를 둔다」등 개정회칙안을 승인받는다.

회장 인사와 고문 격려사, 재경회장을 비롯한 지역회장단 및 영진동문 소개가 있고 축배 순으로 1부 기념식이 진행된다.

제2부 노래 장기자랑 한마당은 실내악단과 초청가수로 무희의 흥겨운 쇼 무대로 꾸며지고, 기별로 노래 및 장기자랑을 벌인다.

또 막간을 이용해 행운상 추첨을 실시, 갖가지 상품을 시상한다.

모교 재학생 49명에게 올해 두차례 용마장학금 1천9백50만원 지급

본부동창회의 용마장학회(이사장 金根發·1회)는 올해 2월과 11월 두차례 경남고 재학생에게 장학금 1천9백50만원을 지급했다.

장학회는 11월 7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적 생활이 뛰어난 경남고 3학년 차성원군 등 1·2·3학년 재학생 37명(명단 별표 참조)에게 모두 1천3백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학교장이 반별로 1명씩 추천한 수혜자는 1학년 12명으로 각 30만원, 2학년 13명으로 각 30만원, 3학년 12명으로 각 50만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받았다.

한편 장학회는 2월 14일 경남고

제52회 졸업식날 우수대학 합격자 및 학업우수졸업자 등 12명에게 6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장학회는 이날 이하영군 등 우수대학 합격자 10명에게 각 50만원, 장태원군 등 학업우수졸업자 2명에게 각 5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임시총회 소집 공고

본부동창회 회칙 제9조 2항(1)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총회를 소집함.

일시: 98년 12월 11일 오후 6시

장소: 부산 코모도호텔 충무홀

의안: 본부동창회 98년 제1차 이사회 및 제2차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회칙 개정회칙안 승인

1998년 11월 26일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회장 정 소 영

*참고: 임시총회에서는 상정 의안 이외는 다룰 수 없음.

본부 이사회·회장단 간담회 개최

임시총회 개최·회칙 개정회칙안 승인 등 의결

본부동창회 올해 제2차 이사회가 11월 25일 오후 6시 30분 부산 중구 부평동 본부회관 14층 골든뷰에 연회실에서 개최, 올해 용마의 밤 축제 30분 전에 임시총회를 열어 이날 의결한 회칙 개정회칙안을 승인받기로 하는 등 주요의안을 심의했다.

鄭昭永 회장(6회)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보다 활력이 넘치는 동창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는 먼저 鄭昭永가 상정한 본부사무국 崔得鎬(11회) 신입사무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만장일치 승인했다.

또 98 용마의 밤 행사는 집행부 원안인 「12월 11일 코모도호텔 개최」 일정대로 확정했고, 행사 계획안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이사회는 회칙 개정회칙안을 심의, 제21조(재정)에 「3항: 회계연

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를 신설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본부의 회계연도는 앞으로 1월 1일~12월 31일이 되고, 이는(재)용마장학회 회계연도와 같게 된다.

또 이사회는 올해 제1차 회의(6월 26일)에서 의결한 회칙 개정회칙안 △제4조 4항 「장학사업」을 「장학사업으로 재단법인 용마장학회를 둔다」 △제11조 11항 「(재)용마장학회 이사 및 감사의 선임」등을 임시총회에서 승인받기로 재확인했다.

이어 제6회 용마대상 수상자로 禹明洙고문(5회)을 선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결과보고가 있었다.

이사회는 앞으로 용마대상은 각 동기회의 후보 추천을 근거로 공적심사위원회가 시상 1개월 전에 공적을 심사, 선정토록 하는 것을 제도화하기로 의결했다.

한편 鄭昭永가 주재한 본부 회장단 간담회가 같은 달 20일 오후 6시 30

분 부산 동구 범일동 일식집 「대어초밥」에서 열렸다.

鄭昭永장은 인사말을 통해 『동창회가 젊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졌다』며 『젊은 층의 동문들이 많이 참여하는 동창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회장단 스스로가 새로운 인식과 각오로 적극 참여하고 세대감을 좁히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동창회 조직활성화와 98 용마의 밤 행사의 성공적 개최 준비, 용마대상은 내년부턴 20명 안팎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 선정하기로 하는 등 현안문제들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鄭昭永장을 비롯해 趙大濟 金鍾享(이상 7회) 朴同烈(8회) 黃永善(9회) 吳剛旭(10회) 徐榮秀 朴基旭부회장(이상 23회), 韓炳祚(13회) 金元泰(18회) 朴哲秉 감사(23회) 등이 참석했다.

모교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

조직강화 헌신

장자 재현(정통기 재취) 등은 교육지도자의 리더십을 확인케 했다.

특히 부산시교육감 재직시(91년 3월~95년 2월)에는 모교 교사(校舍)개선 예산을 배정, 오래된 과학관을 헐고 그 자리에 현대식 5층 교사를 신축, 오늘과 같은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게끔 했다.

미국 배트리스트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은 禹明洙는 94~95년 본부회장 재임중에는 동문 유대강화와 조직활성화를 위해 각 동기회 조직강화를 독려했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개발과 국내의 지역회 순방을 통한 결속력 강화 등에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

후덕한 인품, 남의 의견을 참고 경청해 주는 아량, 보스기질, 진취성 등이 5척 단구인 禹明洙를 넉넉히 커버해 주고 있다.

△연세대 상경대 △중앙여고 교장 △부산시 교육청 연구원장 △중앙고 교장 △시교육청 학무국장 △경남고 교장 △시교육감 △경문회장 △본부동창회장 △동명정보대 석좌교수 △부산에술문화대학장(현).

동창회 장학금 수혜 재학생 명단			
학번	1학년	2학년	3학년
1	변주환	배준용	차성원
2	김윤석	주정민	박세수
3	이상진	이재민	김동구
4	최 범	강민승	이상민
5	서진우	양형욱	유진오
6	한범연	고 훈	성진우
7	정성현	김태구	김민걸
8	김준규	박기홍	주민규
9	제갈문	류광렬	김기훈
10	이근우	송지홍	전민승
11	이 글	박중원	조용행
12	송정훈	송재열	김종운
13		곽동훈	

동창회보 「본부 편집·제작」 당위성 강조

정소영 본부회장, 안우만 재경회장에 밝혀

鄭昭永본부회장(6회)은 10월 12일 오전 본부사무국에서 安又萬재경회장(10회)의 예방을 받고 동창회 발전을 위한 현안문제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鄭본부회장은 이날 安재경회장이 동창회보의 「서울인쇄」제안에 대해 「본부회장이 발행·편집인인 동창회

보는 본부에서 편집·제작하는 것이 순리」라며 「시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완곡한 표현으로 「서울인쇄」제안이 당위성을 간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鄭본부회장은 「지면 확충을 통해 재경의 다양한 뉴스와 정보를 몇 년 전처럼 충분히 포용할 준비가 돼 있다」

고 덧붙였다.

또 鄭본부회장은 安재경회장의 용마장학회 이사회에 서울동문의 참여를 제안한 것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용마장학회의 운영은 건실하며, 더욱 공감할 수 있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력사건 해결사...독조근정훈장 수상

부산지방경찰청
吳昊鍾(19회) 수사과장

『저보다 훨씬 훌륭한 동료 경찰관을 두고 큰 상을 받게 돼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평소 음양으로 격려해준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0월 21일 제53회 경찰의 날을 맞아 정부로부터 독조근정훈장을 받은 吳昊鍾동문(19회·부산경찰청 수사과장)이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吳동문의 이번 수상은 부산 경찰청 올해 유일한 것이어서 더욱

돋보인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와 경찰간부후보생 24기 출신인 吳동문은 76년 9월 경위로 출발한 이래 「강력사건 해결사」로 불릴 만큼 강력·수사통.

경정 승진(89년)후 서부경찰서 등 3개 경찰서 경비과장 등을 거쳐 부산경찰청 형사과 강력계장직만 무려 5년여 동안 지켰을 정도였다.

특히 당시 무궁화호 열차 토막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수원에서 보름여 동안 생활하면서 끝내 범인 검거에 성공하는 등 이 방면에서



명성(?)을 날렸다.

해박한 수사지식과 탁월한 수사기법으로 명쾌한 수사방향을 제시하는 吳동문은 총경승진(96년)후 경북청 교통과장과 경남청 거제경찰서장을 거쳐 올 3월부터 부산청 수사과장직을 맡고 있다.

부산경찰청과 13개 경찰서에 인권보호관 지정운영과 여성수사요원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등 피의자와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에 헌신하고 있다.

모교 야구부에 전국 동문들 협찬·격려

제주지역 30만원
경야회 훈련복 30벌

김명성(19회) 롯데감독
연습공 1백개 기증

모교(경남중·고) 야구부에 동문들의 협찬과 격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지역동창회(회장 金斗數·12회)는 9월 26일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에 부산대표로 출전

한 경남고 야구부 선수단에 격려금 30만원을 협찬했다.

경야회(회장 李民星·22회)는 동계강훈련 준비에 들어간 경남고 야구부 선수들을 위해 트레인복 30벌(1백50만원 상당)을 기증했다.

金明成동문(19회·롯데사이언스구단 감독)은 10월 18일 경남중을 방문, 야구부에 연습공 1백개를 기증하고 선수들을 격려했다.

朴鍾久(5회)

삼구그룹 회장에



朴鍾久동문(5회·재경동창회 고문)은 10월 28일 삼구그룹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했다.

고려대와 이 학교 경영대학원을 나온 朴동문은 재경동창회장장과 삼구통상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고 현재 제일방송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다.

朴洪洙(17회)

학술대회 논문상



朴洪洙동문(17회·명지대 교수)은 10월 16일 한국과학기술학회에서 열린 한국유화학회 제15주년 추계학술대회에서 논문상을 수상했다. 논문제목은 「Ahcovel계 비이온성 내구 유연체의 제조와 유연 특성 연구」. 朴동문은 명지대 재직중 현재까지 1백15편의 연구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하는 등 왕성한 연구활동을 펴고 있다. 2월 23일 명지대 전임교원 연수회에서 학술상을 수상했다. 朴동문은 재경동기회 회장을 맡는 등 동창회 활동에도 열성을 보이고 있다.

朴斗滿(7회)

생활체육탁구聯 회장



朴斗滿동문(7회·본부이사)은 최근 생활체육전국탁구연합회 신입회장에 선임됐다.

연세대 상대를 졸업한 朴동문은 재학시절 탁구부장을 맡아 전국체제를 달성했고 대학시절 때도 탁구선수로 활약. 朴동문은 부산여고와 대한조폐공사 탁구코치, 부산시 탁구협회 전무이사 및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朴昭雄(16회)

마산시 문화상 받아



朴昭雄동문(16회·경남방송아카데미 대표)은 10월 20일 마산시문화상(언론부문)을 수상했다.

부산대 영문학과를 나온 朴동문은 마산문화방송 PD로 입사한 이래 편성국장 심의실장 등을 역임했다. 朴동문은 최근 PD 기자 아나운서 등을 희망하는 방송입문생을 위한 지침서 「방송실무 소프트」를 출간했다.

시 평

오 종 석

제11회·부산대 교수·經濟



다시 새롭게 태어나자

우리는 오늘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세계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일찍이 엘빈 토플러와 같은 미래학자들은 이러한 변화의 모습이나 특징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지금의 산업사회는 빠른 속도로 『제3의 물결』이라 일컫는 정보화사회로 발전할 것이고, 그 사회를 움직이는 파워 역시 재력에서 지력으로 이동할 것이며, 따라서 이런 지력사회에 대응하고 적응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다.

세계는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에서 일찍부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산업구조를 개편하여 왔고, WTO(세계무역기구)체제를 앞세워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발전시켜 왔다. 불행히도 우리는 이러한 세계경제의 밀바탕에 흐르는 변화의 본질을 감지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지금 엄청난 많은 비

이 『아시아적 가치』 『한국적 가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까지 발전하여 한국적발전 모델이 부정되고 있다.

근면성실하고 합심협력하는 한국적가치는 우리의 정통성과 주체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한 한국적가치가 오늘의 경제발전과 물질적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한국적가치가 파생한 부정적측면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의 주체적존재가 부정되는 결과로 발전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새로운 밀레니움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적가치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은 모두 우리들의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그 행동은 새로운 정신으로 무장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도덕성회복운동, 정신재무장운동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진정한 민주사회는 질서와 책

치열한 경쟁사회 변화구조 직시 정신개혁 실천적 리드 자임해야

용을 지불하고 있다.

지금 그 책임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와 시시비비가 전개되고 있다. 과연 우리 모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도덕적해이(moral hagard)에서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이 아니겠는가. 책임의 소재를 밝히는 것이 내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발상을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민적합의를 이끌어내어 새롭게 도약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지금 발상의 전환,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강력히 요청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는 국민적합의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고 물질적풍요를 가져다 주었다. 그것이 어느 사이엔가 자기도취에 빠졌고 정신적해이와 도덕적해이가 치욕적인 IMF체제를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나아가서는 이러한 모습

임의 기초위에서 발전하고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견고해지는 것이다. 이제는 지금까지 지녀온 의식구조와 생활방식, 그리고 경제형태로는 다가온 21C를 성공적으로 열어가 수 없음을 뼈아프게 배우고 있다.

IMF를 우리에게 주어진 더 없는 기회로 생각하자. 원점에 돌아가서 다시 생각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로 삼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의 변화의 모습을 직시하여야 한다.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경쟁대열에서 낙오되고 만다.

그리고 정신개혁운동의 실천적 리더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들의 숭수수범이 사회적 지도자로서 존경과 권위를 회복하는 길임을 다시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의 변화와 개혁의 실천적 리더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 이 시대가 용마인에게 요구하고 있는 명제라고 생각한다.

제7회 동기회 임원·회원 일동

회 장	총 무	權煥成	金水經	金重經	盧聖杻	朴一生	徐又贊	禹載綸	李三昊	鄭慶浩	崔鍾鼓	본 부
尹晋憲	金思遠	金甲成	金榮斗	金鍾一	盧信一	朴正圭	孫明吉	柳昌植	李相植	鄭普泳	崔千圭	부 회장
		金光昱	金榮敏	金珍浩	盧英圭	朴鍾卓	孫完植	尹殷煥	李信徹	鄭陽模	崔考圭	趙大濟
부 회장	회 원	金東聖	金泳祚	金判鍾	盧英鉉	朴周會	孫從銖	李光月	李雲揆	鄭昌坤	陳道善	金鍾淳
金成梁	郭鍾提	金大洙	金容佑	金兌培	文昌潤	朴春燮	宋外得	李基泰	李裕正	鄭鎮相	河根壽	
楊鍾琬	郭鍾宇	金斗烈	金容圭	金熙道	朴景堦	裴健植	宋桂昆	李根培	李在九	趙善才	河任權	본 부
尹治宇	姜大昊	金命寬	金富容	金河龍	朴根弘	裴碩祚	慎鍾玖	李道煥	李春熙	趙永柱	許商	이 사
尹洸善	姜炳熙	金明翰	金元在	金學攻	朴斗錫	裴承泰	申鉉國	李東雨	李泰俊	車在植	許善程	金重經
	姜周洪	金百圭	金章實	金活周	朴明圭	裴乙鎬	安士中	李東允	李孝明	崔圭錫	許宗浩	金鍾洪
감 사	高錫水	金炳柱	金丁煥	金亨浩	朴世亮	白萬菊	安庸洙	李萬福	李相柱	崔富玉	咸興周	朴斗萬
金德馨	權吉純	金三顯	金鍾泰	金活容	朴守鉉	卞玄圭	安鍾永	李培英	林成克	崔渭卿		朴在丰
姜瑒求	權英守	金成烈	金峻泰	金水哲	朴永喆	卞丰圭	吳東煥	李孟雨	林昌植	崔莊翼		

“즐거운 동창회 구현에 의지 결집을”

재경동창회 98년 정기총회... 7백여 동문·가족 참여

재경동창회는 10월 18일(日) 오전 11시 서울 올림픽공원 제3체육관 역도경기장에서 98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安又萬회장(10회·전 법무부장관)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는 鄭銅植재경 명예회장(1회)을 비롯한 동문·가족 7백40여명이 참석했다.

安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즐거운 동창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鄭명예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존경받을 수 있는 선배, 신뢰받을 수 있는 선배가 되어 서로 든든한 힘이 되자』고 당부했다.

국회의원인 손세일동문(8회)은 축사를 통해 『좀더 단결하고 상부상조하자』고 말했다.

문형남동문(20회·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총회는 정순창부회장(13회·SK건설 대표)의 97년 정기총회 회의를 남동, 정충수석감사(15회·국제신문 서울지사장)의 감사보고에 이어 安회장이 상정, 제안설명한 98년 결산보고와 99

기별야구 입상자 시상 여흥즐기며 우정 확인

년 예산안을 승인했다.

이어 진행된 제30회 기별야구대회(5월 10~6월 21일) 입상자 시상식에서 安회장은 대회 통산 10관왕의 위업을 세운 제24회 동기회에 우승컵, 제31회에 준우승컵, 제17회에 감투상, 제35회에 용원상을 각각 수여했다.

또 安회장은 강영창동문(24회)에게 최우수선수상과 변중석 동문(24회)에게 수훈선수상을 시상했고 기타 10명의 개인입상자에게 기념패를 전달했다.

1부 기념식은 동창회 발전을 위한 자유발언 시간을 끝으로 마감됐고 2부 여흥으로 이어졌다.

기별야구대회 개인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 최우수선수상=강영창(24회)

- ▲ 수훈선수상=변중석(24회)
- ▲ 수위타자상=이상률(31회)
- ▲ 타격상=1위 신선규(39회)·2위 박원기(23회)·3위 김문기(31회)
- ▲ 우수선수상=정충연(17회)·구본준(24회)·신영환(31회)
- ▲ 미기상=서봉교(29회)·홍기수(31회)·황호준(39회)

노래 장기자랑 대상 신성수(19회) 행운상 이재동(23회)

이날 동문·가족들은 집행부가 제공한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1시 15분부터 진행된 여흥 한마당을 즐겼다.

이재동동문(23회)의 사회로 진행된 노래 장기자랑은 이동희 동문(11



安又萬재경회장(오른쪽)이 기별야구대회 입상자에게 메달을 수여한 후 기량향상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회)이 심사를 맡아 명가수(?)들을 가려냈다.

이날 대상은 「친구여」를 열창한 신성수동문(19회·신성수 비노기과원장)이 차지했다. 또 우수상은 「하바나길라」를 부른 주정옥동문(31회)에게, 3등은 「댄서의 순정」을 합창한 제17회 동문 부인들에게 돌아갔다. 주동문은 무대매너가 매우 돋보였다는 평.

이날 최다참가상은 동문·가족 62명이 참석한 제30회(회장 김부중)가 수상했다.

한편 행운상 추첨에서는 전광원동문(8회)이 서울~싱가포르 왕복 항공권, 정충동문(15회)이 서울~태국 왕복항공권, 김호석동문(8회)이 자전거, 조수영동문(10회)이 전자렌지, 권오을 동문(35회)이 컬러 TV, 이재동동문(23회)이 김치냉장고를 각각 차지했다. 이날 행사는 전남 장흥에서 온 최형식동문(2회)의 만세삼창을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제18회 경주문화엑스포 여행

부부동반 50여명 1박2일 나들이

제18회 동기회(회장 金俊吉)는 경주문화엑스포를 계기로 동문·가족의 문화 및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가족 동반 문화유적답사여행을 실시했다.

金俊吉회장 부부를 비롯한 문화유적여행단 50여명은 10월 24~25일 1박2일 코스로 경주일원 답사에 나섰다.

일행은 24일 金吉帝동문(전 회장·명성화성 대표)이 제공한 버스편으로 경주에 도착, 코오롱호텔에서 1박했다. 이날 육병구 총무가 간식으로 준비한 떡이 인기를 끌었다. 여장을 풀고 일행은 전야제를 올리고 문화유적답사 사전학습도 벌였다.

첫날 일행은 신라문화원 원장의 특강에 이어 남산유적지를 돌아보며 서라벌의 옛 영화를 되새겼고 부처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했다.

봉계에서 한우불고기 집식을 한 일행은 이번 문화유적답사여행이 어느 때 보다도 유익했다고 입을 모았다.

金회장은 『바쁜 일상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 나선 문화유적답사가 매우

보람을 느끼게 했다』며 『내년에도 이 같은 행사를 계속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18회 지역회 결성 사하·서·강서구회장 林道根 부산진·연제구 회장 金大憲

제18회동기회는 동문유대 강화와 더욱 풍성한 동기회로 육성하기 위해 지역회 결성을 단행했다.

지역회는 거주지·직장별로 30~40명의 동문을 단위회로 결성했다. 이에 따라 최근 사하·서·강서구 지역회가 결성돼 회장에 林道根(삼공사 전무), 총무에 徐富源동문(한샘 부동산 대표)을 선임했다.

또 부산진·연제구지역회는 회장에 金大憲(신한방사선과의원장), 총무에 양정만동문(미라호텔 대표)을 각각 선임했다.

한편 남구·수영구지역회, 동래·금정구지역회도 곧 결성할 계획이다. 각 지역회가 결성되면 체육대회·등산·바둑·당구대회 등을 개최해 결속과 화합을 촉진한다.

대전지역, 충북 용마 초청 합동산행

29명 계룡산 만산홍엽에 묻혀 상부상조 다짐

대전·충남지역동창회(회장 張虎男·17회·한국과기대 학장)는 11월 1일(日) 충북지역동창회(회장 孫永牧·14회·서원대 교수) 용마가족을 계룡산으로 초청, 단풍놀이 산행대회를 펼치고 우정을 깊게 심었다.

대전·충남지역 용마산악회(회장 金贊萬·20회·한일관세사사무소 대표)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대전에서 24명과 충북에서 5명 등 모두 29명이 참석했다.

만산홍엽이 불타는 계룡산을 金大

業동문(20회)이 리드, 낙오자없이 일행은 동학사-남매탐-금잔디고개-남매탐-동학사주차장 코스를 완주하면서, 서로 세상 사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늦가을의 정취를 즐겼다.

점심은 대전에서 「월평충무김밥」을 개업한 潘光雄동문(15회)의 가게로부터 조달, 산 위에서 맛있게 먹었다.

오후 5시경 배이스캠프로 사용한 「전주식당」에 다시 모여 막걸리와 파전, 도토리묵 등으로 회포를 풀었

다. 충북에서 온 동문들을 주축으로 한 일부는 유성에서 온천욕을 한 후 潘동문의 집포에서 2차 모임을 열어 산행에서 못다 푼 속마음을 쏟아내었다.

한편 충북지역동창회는 이날 내년 봄에는 대전·충남지역동창회 용마가족을 속리산으로 초청, 산행대회를 개최하겠다고 선언, 박수를 받았다.

제26회 골프대회 우승 朴東基 메달리스트 李圭龍 생애 첫 홀인원

제26회동기회(회장 朴將賢) 취미클럽인 26골(골프회)은 10월 20일 동부산CC에서 제26회 동기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 朴동기회장과 孫榮秀클럽회장 등 16명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서 우승 朴東基·준우승 朴東憲·메달리스트 李圭龍·행운상 王淨日·니어리스트 李政一·롱리스트 金斗泉 동문 차지.

특히 메달리스트 李동문은 레이크 2번 홀에서 생애 첫 홀인원을 기록, 참석 골퍼들의 부러움 속에 축하를 받았고 李동문은 담배로 금일봉을 회사.



11월 1일 대전·충남지역동창회와 충북지역동창회가 계룡산에서 합동산행대회를 가졌다.

재경8회 “겨울 건강 조심을” 동문에 메시지

제8회재경동기회 팔선회(바둑) 팔봉회(산행) 잔디회(골프)는 10월에도 활발한 모임을 갖고 우정을 재확인했다.

李昌圭회장은 모든 동문·가족에게 『가급적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올해 겨울내내 건강하게 지낼 것』을 당부했다.

골프우승 鄭鎭秀·윤문자

▶잔디회는 10월 15일(木) 안성CC에서 월례대회를 개최. 李昌根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에서 남자부는 우승 鄭鎭秀·준우승 盧在卜·행운상 裴柱元동문이 차지. 또 여자부는 우승 윤문자(裴柱元 부인)·준우승 이정자(李有煥 부인)·행운상 장은아씨(尹泰永 부인)가 획득.

팔선회 바둑대회 10월 우승 배우진

▶팔선회는 10월 17일(土) 제일기원에서 월례 친선대회를 개최. 李有煥회장을 비롯, 尹泰永 裴柱元 申鉉周 金珍奭 秋正和 李重根 李昌根동문 등 8명이 대국을 벌인 끝에 우승 裴柱元·준우승 李有煥동문 차지.

팔봉회 관악산 산행

▶팔봉회는 10월 17일 오전10시 金榮哲회장을 비롯, 丁奎徹 廉炳永 李熙淳 林榮澤 徐瑛郁 文圭桓동문 등 7명이 서울대 입구에서 출발, 팔봉을 거쳐 과천으로 빠지는 관악산 산행.

제16회 바둑대회 우승 이겸일

기우회 신임회장 辛泰圭 선임



제16회 동기회(회장 朴敏昭)는 10월 31일 오후1시 부산 중구 중앙동 대창빌딩 2층 동기회사무실에서 기우회주관 98년 제2차 바둑대회를 개최했다.

32명 동문이 참가한 이날 대회에서 우승은 李謙一, 준우승은 金煥佑동문이 차지했다.

한편 대회가 끝난 후 임시총회를 열고 辛泰圭동문(코리아나여행사 대표·사인)을 신임회장으로 선임, 기우회의 활성화를 결의했다.

馬·昌 '98용마의 밤 12월 18일 거행

마산창원지역동창회는 11월 5일 마산역 앞 「황실뷔페」에서 이사회를 열었다.

李珠昌회장(17회)이 주재한 이날 이사회는 40여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98년도 중간결산보고

를 승인했다.

또 이사회는 98용마의 밤 행사를 12월 18일 오후 7시 창원시 인터내셔널호텔 국제연회장에서 개최하기로 행사일정을 확정했다.

재경16회 이사회... 차기회장 설희순 내정

부산의 옥윤석 국장 싱싱한 활어회 공수 “따봉”

제16회재경동기회는 11월 4일 오후7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하로동선」에서 盧正鉉회장의 주재로 98년 제2차 이사회를 열고 △12월 정기총회 안건 및 99년 신년회 개최 예산안 △차기 회장에 薛熙淳동

문(삼태크 고문) 추천 등 주요의안을 심의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30여명이 참석, 모처럼 분위기가 뜨거워지자 신변잡담이 무성했다.

특히 부산의 玉潤錫 동기회 사무국장이 공수해온 자갈치에서 손수 고른 자연산 활어회를 안주상 푸짐히 펼쳐 놓는 바람에 소주파티가 밤새는 줄을 몰랐다.



구덕산우회, 백두대간 종주 성공

지리산~향로봉 9백50km 단 19차만에

하루 15~18시간 강행군

내년 3월 조국山河
사진·그림으로 전시회

전문 산악단체를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구덕산우회(회장 李昌欽·19회)가 지난해 3월 백두대간 종주에 도전, 단 19차만에 고난의 대장정에 성공, 쾌거를 올렸다.

구덕산우회 백두대간 종주단원은 지난해 3월 지리산 천왕봉을 출발한 지 1년8개월만인 10월 18일 종착지인 분단조국 남쪽 끝자락 향로봉 정상에 감격 속에 밟았다.

마지막 종주에 참가한 30여명의 구덕산인들은 향로봉 정상에서 거행된 답과식에서 교가와 『후라! 경고!』를 목청높여 외치며 시련과 감격을 함께 되새겼다.

李昌欽회장이 『백두산인에게 삼가 고하노니, 이 길이 민족의 성산 백두산까지 이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나

머지 백두대간 길에도 우리 구덕산인들의 발길이 이어지게 하소서』라며 조국 통일 염원을 담은 발원문을 읽는 동안 구덕산인들은 땀어르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일반산악회 경우 이 코스를 구간화해 당일치기로 산행, 40~50차 소요되지만, 이들은 매일 1차씩 1회차당 3박4일간의 산악여행 일정을 택함으로써 획기적 기록을 세웠다.

吳起鉉산행대장(20회)이 리더한 종주거리는 줄잡아 950km 일행은 이

틀 밤낮 비 맞으며 산속 방황, 3~4일간 야영숙 하루 15~18시간씩 강행군, 이 때문에 구간종주 낙오자 발생, 리더의 절벽 낙상(입술 10바늘 꿰매는 수술 받음), 길 잃은 대원 찾아 온 산 수색 등 사연을 넘고 또 넘었다.

투지의 구덕산인들은 지리산~덕유산~속리산~소백산~태백산~두타산~청옥산~대관령~오대의 두로봉~점봉산~설악산을 계획보다 2개월 빨리 종주하는데 성공했다.

吳대장은 『이번 백두대간 종주는

팀웍이 이끌어낸 성공작』이라며 『기상 넘치는 조국산하의 모습을 내년에 그림과 사진으로 용마가족에게 선 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덕산우회는 백두대간 종주에 매 구간마다 부산의 차일두 화백과 사진작가 박상현씨를 동행시켜 한반도의 정기가 울울히 서려있는 백두대간의 사계를 화폭과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도록 했으며, 이를 내년 3월에 전시회를 통해 재현키로 했다.

(예고:吳起鉉동문의 백두대간 종주기를 회보 제305호부터 게재할 예정임)



구덕산우회 회원들이 지리산~향로봉 9백50km를 완주한 후 향로봉 전망대에서 감격의 한순간을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11회 이사회 회기 1~12월로 바뀜

제11회동기회는 10월15일 오후 7시 중앙동 「서울식당」에서 98년 추계이사회를 개최했다.

吳完洙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22명의 이사들이 참석, 소주잔을 나누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사회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말까지인 회기를 99년부터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바꾸는 등 주요의안을 심의했다.

제33회 임시총회 홀케임 준비위 구성 성공적 개최 다짐

제33회동기회는 11월 17일 오후 7시 본부동창회관(부산 중구 부평동 골든오피스텔 411호) 14층 「골든뷔페」에서 졸업 20주년 모교방문행사 준비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尹聖國회장이 주재한 이날 총회는 20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회칙개정안 승인, 졸업 20주년 행사 예산안 확정, 준비위원 선임보고, 임원선출 등 주요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동문들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홀케임데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십시일반 힘을 합치기로 결의했다.



단풍이 불타는 황악산 정상에 오른 제21회 동기의 용마가족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21회 용마가족 황악산 올라

부산·서울·경기·영남서 1백여명 참가

제21회동기회(회장 姜洙慶) 부산·영남·서울·경기지역 용마가족 1백여명이 10월 25일 단풍이 불타는 경남 김천 근교 황악산(1천1백m)에서 산행을 통해 우정한마당을 펼쳤다.

姜회장이 주재한 이날 합동산행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가족동반 행사로 재회의 기쁨이 산행들머리 집결지인 직지사서부터 만개했다.

일행은 예정보다 늦어진 7시간여의 산행 끝에 직지사안 식당촌에 모여 산채정식으로 허기를 채웠다. 시원한 동동주로 갈증을 풀 일행은 「산행중 15명이 가파른 산길에서 길을 잃어 조난신고 직전까지 갔던 긴박한 상황을 동문들의 극적 구조작전으로 무사귀환」한 무용담을 듣고 한바탕 웃음꽃을 피웠다.

제26회 대동제 백양농원서 “신바람” 만끽

제26회동기회는 10월 25일 백양농원에서 가족동반 가을대동제를 베풀었다.

朴將賢회장(범어사임구 「북한음식」대표)이 주재한 이날 잔치에는 열아홉살의 부부를 비롯해 60여명이 참석, 마누라 업고 달리기와 풋베이스볼 등으로 심신을 단련했다.

특히 동문·가족들은 차출된 요리사동문이 가마솥에서 직접 삶아낸 닭백숙과 닭죽의 맛에 『별미 최고야!』를 연발했다.

일행은 집행부가 마련한 롯데상품권(3만원)과 제일제당 공장장인 高圭錫동문이 협찬한 상품을 선물로 받아 즐거워했다.

이날 대동제의 협찬은 △高圭錫=상품 △朴載旭=20만원 △金斗泉·金相賢·李圭龍·朴東憲·李炳玉=각 10만원 △기우회·26악(산악회)=26골(골프회)=각 10만원 등이다.



제1회 동기회장배 쟁탈 바둑대회를 마친 동문들이 뒤뜰에서 우정을 나누고 있다.

동기회장배 쟁탈 첫 바둑대회

제29회, 우승 선석기·이상룡 차지

제29회동기회(회장 金大旭)는 9월 20일 부산역 앞 광장빌딩 옆 한국기원에서 제1회 동기회장배쟁탈 바둑대회를 열었다.

동기회 바둑동호인 모임인 형석회(회장 李相龍)가 주관한 이날 대국은 30여명의 기사들이 참석, 오전 10시부터 A·B조로 나눠 토너먼트로 치러졌다.

이날 대국 결과 A조(1급~3급)에서는 우승 선석기·준우승 姜聖薰동문이, B조(4급~7급)에서는 우승 李相龍·준우승 金敏鎬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행사를 마친 동문들은 아리랑 관광호텔 단란주점에서 뒤풀이를 했다.

제8회 동기회 집행부·이사 명단

고 문
金甲得
孔相泰
魯善泰
李潤昨
李春基
張赫杓

수 석
부회장
白玉鉉

부회장
都限瑩
文 局
沈載鴻
李成鎬
林金植
趙晨來

감 사
李昌雨
李熙玉

총 무
趙鳳錫

재 무
鄭仁浩

이 사
姜聖道
具本攝
金文覺
金鳳吉
金尙坤
金相植
金乙煥(영)
金乙煥(감)
金程坤
金鐘雲

金澤奎
陸允誠
文東現
朴世昌
朴永佑
裴基炫
裴德朱
尙基鐘
徐錫東
徐鎮根
成玄源

沈載斗
安秉權
安鐘烈
嚴德良
李相穆
李相貳
李長成
李哲昊
李泰浩
李顯朱
李告元

林乙洙
張吉榮
張喜俊
鄭金出
丁根根
曹大俊
崔敬泰
崔洛秉
崔允植

연합A-연합B

(10월 11일 경남고 11:00)

회	1	2	3	4	5	6	7	8	계
연합A	5	2	0						7
연합B	4	1	7						12

회	1	2	3	4	5	6	7	8	계
연합A	16	7	4	5	2	·	1	5	1
연합B	26	12	12	6	7	·	·	7	5

◇ 연합A

- ▲투수=최박지
- 포수=안성문
- ▲3루타=최박지(1회)
- ▲2루타=최박지 김상환(이상 2회)

◇ 연합B

- ▲투수=박문기
- 포수=장상근
- ▲홈런=김용관(1·3회)
- ▲3루타=유박형(1회)

〈전황〉 연합B는 1회초 1번 유박형의 2루타로 포문을 연 후 3번 김용관의 2점 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하고 이어 4번 김상근, 5번 김상우의 연타로 다시 2점을 추가 4-0으로 앞서 나갔다.

연합A의 저항도 대단했다. 1회말 반격에 나선 A는 3번 이창훈, 4번 최박지의 연타로 상대 실책을 묶어 5득점 5-4로 역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2회초 B는 박문기의 적시타로 동점을 만들고 3회 김용관의 3점 홈런으로 재역전, 이어 장상근 박시삼의 적시타를 묶어 7득점 승부를 결정지었다.

중년 결승전

제15·20회-제16·19회

(11월 1일 경남고 14:00)

회	1	2	3	4	5	6	7	8	계
제15·20회	2	1	0	0	0	0	×		3
제16·19회	2	0	0	0	0	0	0		2

회	1	2	3	4	5	6	7	8	계
제15·20회	22	3	2	2	3	·	2	1	·
제16·19회	24	1	3	1	1	·	2	5	3

◇ 제15·20회

- ▲투수=송근호
- 포수=박상성
- ◇ 제16·19회
- ▲투수=남진형
- 포수=김중기
- ▲2루타=허홍욱(1회)

〈전황〉 제15·20회는 결승전에서 제16·19회(예선에서 제14·21회 제압)와 격돌, 한판 승부를 벌였다.

1회 박상성이 1-1 동점상에서 증전 적시타를 때려 역전드라마를 연출했다. 제15·20회는 이후 선발 송근호(20회)의 호투로 제16·19회의 타선을 꽂꽂 묶는 바람에 2-1로 힘겹게 승리, 황금 용마기를 쟁취했다.

중년 1차전

제14·21회제16·19회

(10월 11일 경남고 12:00)

회	1	2	3	4	5	6	7	8	계
제14·21회	0	1	0	2	2				5
제16·19회	5	0	4	4					13

회	1	2	3	4	5	6	7	8	계
제14·21회	26	5	6	4	0	0	1	5	7
제16·19회	29	13	13	12	5	·	1	3	5

◇ 제14·21회

- ▲투수=박상주·최충락·이효근
- 포수=김동우
- ▲2루타=박상주(4회) 최충락(5회)

◇ 제16·19회

- ▲투수=차상영
- 포수=김중기
- ▲3루타=이창근 안국정(이상 3회)
- ▲2루타=허홍욱(1회) 이창근 김중기 정태화(이상 각 4회)

〈전황〉 제16·19회는 1회 2번 김관욱 허홍욱의 연타와 5번 김중기, 8번 안국정의 적시타로 대거 5득점하며 초반에 승부를 결정짓고 이어 3회, 4회에도 이창근의 2루타와 안국정의 2타점 3루타 등으로 각각 4득점씩을 추가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제14·21회는 1번 이효근이 3타수 2안타로 분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장년 결승전

제22회-제33회

(11월 1일 경남고 12:00)

회	1	2	3	4	5	6	7	8	계
제22회	6	2	1	4	0	0	0		13
제33회	2	1	0	1	0	0	2		6

◇ 제22회

- ▲투수=김교철
- 포수=최만철
- ▲홈런=이대섭(4회)
- ▲2루타=이윤규(1회) 김승규(6회)
- ◇ 제33회
- ▲투수=황규태·김재선
- 포수=이윤조
- ▲2루타=서광기 윤상현(이상 2회) 이윤조(7회)

〈전황〉 제22회 투수 김교철이 제33회 막강타선을 7안타 6실점으로 잘 막고 2회 최만철 희생타와 장성덕의 적시타로 2점, 3회 이민성의 희생타로 1점, 4회 2사만루의 상황에서 4번 이대섭의 좌월 만루홈런으로 쐐기를 박았다.

제33회는 2회 서광기의 적시타와 4회 김중인의 적시타, 7회 이윤조의 2타점 2루타로 선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장년 4강전

제24회-제33회

(10월 31일 경남고 15:10)

회	1	2	3	4	5	6	7	8	계
제24회	5	0	2	0	0	0	0		7
제33회	3	1	1	0	1	2	×		8

회	1	2	3	4	5	6	7	8	계
제24회	28	2	8	2	1	·	2	3	6
제33회	29	8	14	8	6	·	1	6	4

◇ 제24회

- ▲투수=변정규
- 포수=강종문
- ▲2루타=황성동(5회) 노상우(6회)
- ◇ 제33회
- ▲투수=황규태
- 포수=이윤조
- ▲홈런=김용민(1회) 박상국(1·3회)
- ▲3루타=김효섭(5회)
- ▲2루타=김종인(2·6회) 황규태(2회) 백수현(3회) 서광기 김용민(이상 6회)

〈전황〉 제33회 투수 황규태가 제24회 타선을 잘 요리하고 1회 김용민, 박상국의 홈런포로 상대 기선을 제압하고 이어 3회에도 박상국의 연타석 홈런으로 점수

를 추가.

제24회는 3회 황성동 정기준의 적시타로 2점을 뽑은 게 핸들을 제외한 유일한 득점이었다. 제33회는 7-6으로 뒤진 6회말에서 서광기의 동점타와 김용민의 역전 2루타로 승리.

제22회-제29회

(10월 31일 경남고 13:30)

회	1	2	3	4	5	6	7	8	계
제22회	5	1	4	0	1	0	0		11
제29회	·	0	0	1	0	0	0		1

회	1	2	3	4	5	6	7	8	계
제22회	28	7	10	10	5	2	2	10	3
제29회	26	1	5	1	3	·	2	9	6

◇ 제22회

- ▲투수=김교철
- 포수=최만철
- ▲3루타=장성만(6회)
- ▲2루타=최우현(3회)
- ◇ 제29회
- ▲투수=임문홍·이범익



제30회 기별야구대회 장년부 결승전 경기 장면.

포수=장원경

- ▲2루타=배경환(4회) 현제성(7회)

〈전황〉 제22회의 완승! 제22회 투수 김교철의 제29회 타선을 단 1점으로 막고 3회 2번 이윤규의 안타와 김승규 조흥기 최우현의 연타가 터지며 4점을 추가 10-0으로 앞서고 5회 이대섭이 1점을 추가 승리했다.

장년 8강전

제22회-제32회

(10월 25일 경남고 15:00)

회	1	2	3	4	5	6	7	8	계
제22회	4	7	4	0	0	0	0		20
제32회	2	0	0	0	0	0	0		2

회	1	2	3	4	5	6	7	8	계
제22회	32	15	12	15	8	·	3	3	2
제32회	25	2	2	2	4	·	1	2	3

◇ 제22회

- ▲투수=김승규
- 포수=최만철
- ▲홈런=조흥기(4회)
- ▲2루타=조흥기(1·2회)
- ◇ 제32회
- ▲투수=이종선
- 포수=박종우
- ▲2루타=이종선(1회) 이한용(3회)

〈전황〉 제22회의 위력이 과시된 한판이었다.

제22회 투수 김승규는 제32회 타선을 2안타 2실점으로 막고 4번 조흥기가 만루 홈런과 2루타 2개를 날려 팀 승리의 건인차로 떠올랐다.

제30회-제33회

(10월 25일 경남고 11:40)

회	1	2	3	4	5	6	7	8	계
제30회	2	1	1	0	2	0	0		6
제33회	3	0	3	3	0	5	×		14

회	1	2	3	4	5	6	7	8	계
제30회	28	4	8	4	2	·	1	5	6
제33회	34	14	14	14	5	·	5	5	·

◇ 제30회

- ▲투수=공영우·강규태
- 포수=김기수
- ▲홈런=조재우(5회)
- ▲2루타=공영우(2회) 임규영(3·5회)

◇ 제33회

- ▲투수=김재선·서광기
- 포수=이윤조
- ▲홈런=이윤조(1회)
- ▲3루타=이윤조(3회)
- ▲2루타=백홍문(4회) 박상국 임광욱 양영철(이상 각 6회)

〈전황〉 제33회는 1회 이윤조의 2점 홈런과 백수현의 적시타로 3점을 선취. 3, 4회에서도 이윤조의 3루타와 백홍문의 2루타로 각각 3점씩을 추가했고 6회 적시타에 힘입어 5점을 더 견져 승리했다.

장년 1차전

제24회-제27회

(10월 10일 경남고 15:10)

회	1	2	3	4	5	6	7	8	계
제24회	5	4	7	4	0	0	×		22
제27회	0	0	0	1	1	0	0		2

회	1	2	3	4	5	6	7	8	계
제24회	37	20	23	23	5	·	·	3	2
제27회	24	2	3	3	5	1	3	9	5

◇ 제24회

- ▲투수=정기준
- 포수=강종문
- ▲홈런=오기봉(1회 4회)
- ▲2루타=김학주(1·2·3회) 황성동(2·4회) 오기봉-문재룡(이상 3회)
- ◇ 제27회
- ▲투수=조영일·김경진
- 포수=김경진·조영일
- ▲2루타=조영일(5회)

〈전황〉 제24회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제24회 선발 정기준이 제27회 타선을 단 2점으로 묶어놓고 오기봉의 홈런 2발과 매회마다 터지는 막강 화력으로 적진을 위협. 제27회는 조영일과 김경진이 이어던지며 분전했으나 역부족이었다. 제24회는 선발 전원 안타라는 기록을 세우며 완승!

제22회-제26회

(10월 10일 경남고 13:30)

회	1	2	3	4	5	6	7	8	계
제22회	2	2	1	1	2	1	10		19
제26회	6	0	0	2	0	0	0		8

회	1	2	3	4	5	6	7	8	계
제22회	42	19	22	15	3	1	2	4	6
제26회	39	8	14	7	12	·	2	13	12

◇ 제22회

- ▲투수=김승규
- 포수=이민성
- ▲2루타=조흥기(2·3·7회) 김승규(3·7회) 이윤규(5·6회) 박진수(7회)
- ◇ 제26회
- ▲투수=강성우·최수일
- 포수=이윤봉
- ▲3루타=최수일 이영덕(이상 1회)
- ▲2루타=이윤봉(4회) 최수일(5회)

〈전황〉 제26회의 1회말 공격. 2번 최수일의 3루타로 포문을 연 후 4번 이영

7면에 계속 →

→ 6면에서 이어짐

덕, 5번 김광대, 6번 강성우, 7번 이윤봉의 연속 안타로 대거 6득점하며 좋은 출발을 보였다.

제22회는 1번부터 9번타자까지 고른 공격력을 보이며 매회 꾸준히 득점하며 5회 8-8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후 6회 1점, 7회 대거 10점을 추가하며 후반 대역전승을 만들었다. 이날 제22회는 4번 조홍기의 4타수 4안타 2루타 3개, 5번 최우현의 5타수 4안타로 공격의 핵을 이루며 승리의 수훈이 되었다.

제23회-제30회

(10월 10일 경남고 15:10)

회	1	2	3	4	5	6	7	8	계
제23회	6	0	1	2	0	0			9
제30회	2	0	4	6	7	6			25

◇ 제23회

▲투수=장기태·현인호
포수=곽창호
▲3루타=현인호(1회)
▲2루타=김상영(1·4회) 권철현(3회)

◇ 제30회

▲투수=고영우
포수=김기수·황철민
▲홈런=임규영(1회)
▲3루타=조재우(1회)
▲2루타=장재호(1·4·5회) 천성일(3회) 왕순모(4·6회)

<전황> 제23회는 1회 핸디 포함 6-2로 앞서 나갔으나 제30회의 막강 타선에는 역부족이었다.

제30회는 9-6으로 3점 뒤진 4회말 공격에서 1번 조재우의 내야안타를 시작으로 왕순모, 장재호의 연속 2루타와 7번 임규영의 홈런으로 대거 6득점하며 역전시킨 후 5회에서도 5개의 안타를 퍼부으며 7득점하며 승부의 쐈기를 박았다.

청년 결승전

제39회-제42회

(11월 1일 경남고 10:00)

회	1	2	3	4	5	6	7	8	계
제39회	5	1	0	5	7	0	0		18
제42회	0	1	4	7	5	3	×		20

◇ 제39회

▲투수=하성표·정순환·정호연
포수=이승기
▲3루타=이중운(4회)
▲2루타=이중운(1·2회) 장두용(4회) 이승기(5회)

◇ 제42회

▲투수=위성광·이동기·홍택선·이영환·박일수
포수=송정열·김병재
▲3루타=이영환(5회)
▲2루타=박광용(3회) 박기열(4회) 김병재·홍택선(이상 5회) 이영환(6회)

<전황> 결승전다운 뜨거운 타격전이었다.

제39회는 1·2회에 이중운의 연타석 2루타와 이승기의 적시타로 6점을 선취하며 이겨나가고 제42회는 2·3회 상대 실책과 박광용의 2타점 2루타, 송정열, 김병재의 적시타로 5점을 추격해 나갔다.

다시 제39회의 4·5회의 공격, 이중운의 적시 3루타와 박종국·하성표·이상기

이승기의 적시타점들이 터져 각각 5, 7점씩 추가했다. 이어 제42회도 4회 신일호의 2타점 적시타와 상대실책을 묶어 대거 7점을 추격.

이어 5회에도 김병재·홍택선의 연속 2루타와 이영환의 적시 3루타로 5점을 추가, 1점차로 바짝 추격. 6회말 이영환의 역전 2루타로 3점을 추가 역전에 성공 7회초 제42회 투수 박일수가 제39회 타선을 깔끔하게 마무리해 우승.

청년 4강전

제39회-제41회

(10월 31일 경남고 13:30)

회	1	2	3	4	5	6	7	8	계
제39회	9	0	3	0	0	0	4		16
제41회	2	0	0	4	1	2	0		9

◇ 제39회

▲투수=하성표
포수=이승기
▲3루타=정순환(7회)
▲2루타=이중운(1·2·3·7회) 정순환(1회) 이승기(3회)



10월 25일 경남중에서 제30회와 경기를 마친 제33회동기회 용마가족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제41회

▲투수=오동현·허치회
포수=김인수
▲3루타=오동현(4회)
▲2루타=백창봉(1회) 허치회(3회) 김득수(4회)

<전황> 제39회는 1회 이중운의 2타점 2루타와 정순환의 2타점 적시타, 상대 실책을 묶어 타자 일순하며 9점을 선취, 초반에 승부를 결정지었다.

제41회는 12-2로 뒤지던 4회 백창봉의 안타와 오동현 김득수의 적시타로 4점을 더 따라가는 힘을 보였으나 제39회의 7회초 정순환의 3루타와 이중운의 2루타 등으로 4점을 더 도망가며 쐈기를 박았다.

제38회-제42회

(10월 31일 경남고 15:10)

회	1	2	3	4	5	6	7	8	계
제38회	2	2	2	0	5	0	6		17
제42회	6	3	3	0	4	0	2		18

◇ 제38회

▲투수=김문철
포수=차정호
▲3루타=김문철(5회) 조용철(6회)
▲2루타=노재완(3·5회)

◇ 제42회

▲투수=위성광·이동기
포수=송정열
▲2루타=송정열(1회) 신일호(3회)

<전황> 제42회가 1회말 1번 박기열의 안타를 시작으로 신일호의 안타와 박광용, 송정열의 적시타, 상대실책을 묶어 타자 일순하며 6점을 선취하며 앞서 나갔다.

제38회는 2·3회 광동렬, 노재완의 적시타로 각각 2점씩 추격하고 11-16으로 뒤지고 있던 7회 공격에서 광동렬의 2타점 적시타와 조용철의 2타점 3루타, 황온철의 2타점으로 6점을 뽑으며 17-16으로 대역전에 성공했다.

그러나 제42회의 7회말 공격에서 박기열의 동점타와 1사 1, 2루에서 4번 김상현의 깨끗한 좌전 끝내기 안타로 승부를 결정지었다.

청년 8강전

제36회-제38회

(10월 25일 경남중 10:00)

회	1	2	3	4	5	6	7	8	계
제36회	1	1	0	0	0	0	0		2
제38회	1	0	5	1	0	0	×		7

역전, 재역전 드라마에 환호·아쉬움

◇ 제39회

▲투수=하성표·성동규
포수=이승기
▲홈런=이상기(1회 1점·5회 2점)
▲2루타=정순환(2회) 천용준(5회)

<전황> 제35회는 1회 첫 타자 정문종의 안타를 신호로 4번 주인환까지 연속 4안타를 몰아치며 3득점 했고 5회에도 2점을 추가해 7(핸디2점 포함)-2로 앞섰다. 그러나 제39회의 5회말 대반격에 휘말려 고루 끝에 역전패. 39회는 5회말 천용준 이성기 이중운의 적시타로 4점을 뽑아 8-7 짜릿한 역전극을 연출했다.

제40회-제42회

(10월 25일 경남고 10:00)

회	1	2	3	4	5	6	7	8	계
제40회	2	0	0	1	0	0	0		3
제42회	3	4	0	0	0	1	×		7

◇ 제40회

▲투수=이승배
포수=이영직
▲3루타=박광용(1회)

◇ 제42회

▲투수=홍택선·이동기
포수=송정열
▲3루타=박기열(2회)
▲2루타=박기열(1회) 신일호 김정민 권기범(이상 각 2회)

<전황> 제42회는 1·2회 박기열의 2루타와 김정민 권기범 홍택선의 안타 등으로 대거 7점을 뽑아 초반에 승리를 잡았고 7회 이동기의 1점을 합쳐 승리했다. 제40회는 1회 2점, 4회 1점 등을 건졌을 뿐 빈타로 전세를 반전시키지 못했다.

제41회-제43회

(10월 24일 경남중 13:30)

회	1	2	3	4	5	6	7	8	계
제41회	4	3	5	1	3	0	0		16
제43회	6	4	1	0	2	0	0		13

◇ 제41회

▲투수=이주하
포수=신동주
▲3루타=신동진(5회)
▲2루타=강병호(1·2회) 정승서(1·5회) 김득수(2회) 허치회(5회)

◇ 제43회

▲투수=정재욱
포수=이하노
▲홈런=문영찬(2회) 김진규(5회)
▲3루타=장시호(2회)
▲2루타=장시호(1회)

<전황> 제41회와 제43회는 젊음을 과시하듯 시종 불꽃튀는 타격전을 벌였다. 제41회는 2회까지 7-10으로 뒤지고 있었으나 3회 상대 실책을 틈타 5점을 건지는 행운을 잡아 역전극을 벌인뒤 4·5회 정승서의 2루타와 신동진의 3루타로 4점을 추가해 승리했다.

제37회-제41회

(10월 25일 경남고 13:20)

회	1	2	3	4	5	6	7	8	계
제37회	4	0	0	0	2	5	0		11
제41회	3	0	3	2	3	0	1		12

청년 1차전

제37회-제41회

(10월 25일 경남고 13:20)

회	1	2	3	4	5	6	7	8	계
제37회	4	0	0	0	2	5	0		11
제41회	3	0	3	2	3	0	1		12

제37회	36	11	13	9	4	·	2	9	8	2
	타득안 수점점	타 점	도회사 루타구	삼잔 진루	헨디					
제41회	31	12	11	12	2	·	5	1	5	·

◇ 제37회

▲투수=오기욱
포수=김정수
▲3루타=소수현(1회·6회) 김정수(1회)
▲2루타=신수홍 양순남(이상 5회)

◇ 제41회

▲투수=이주하 최병철
포수=김인수
▲3루타=정성서(3회) 오동현(4회)
▲2루타=류방석(3회) 정재철(1회) 최병호(5회)

<전황> 제37회와 제41회는 6회까지 팽팽한 타격전으로 11-11 동점을 이룬 승마치는 접전이었다.

제37회는 1회 4점(핸디 2점 포함)을 뽑은 후 5회 2점, 6회 5점을 건졌다. 제41회는 7회말 공격에서 몸타자 황정도가 상대 내야 실책으로 출루했고 도루까지 성공하는 등 행운이 따랐다. 이어 8번 김인수가 끝내기 중전 클린 히트를 날려 승부를 가렸다.

제34회-제42회

(10월 24일 경남중 15:10)

회	1	2	3	4	5	6	7	8	계
제34회	0	4	0	2	5	0	0		11
제42회	2	4	0	0	8	0	×		14

◇ 제34회

▲투수=이재봉
포수=권대식
▲2루타=김한조(4·5회) 권대식 이문걸 이재봉(이상 5회)

◇ 제42회

▲투수=이영환
포수=송정열
▲홈런=송정열(2회) 김상현 신일호(이상 5회)
▲2루타=신일호(1·2회) 이동기(2·5회) 백기열(2회·5회) 송정열(5회)

<전황> 제34회는 4회 김한조 이재봉의 적시타 2점과 5회 권대식 이문걸 김한조 이재봉의 연속2루타로 5득점하는 등 11(핸디4점 포함)-6으로 제42회를 위협했다. 그러나 5회말 제42회의 타선이 작렬, 장타 위력을 과시했다.

제39회-제44회

(10월 24일 경남고 13:30)

회	1	2	3	4	5	6	7	8	계
제39회	5	0	0	1	3	0	1		10
제44회	4	1	1	0	0	0	0		6

◇ 제39회

▲투수=박종국
포수=이승기
▲3루타=이중운(7회)
▲2루타=이상기(5회)

◇ 제44회

▲투수=석상봉·배종세
포수=이태식
▲홈런=신진수(1회)
▲2루타=심승훈 김성욱(이상 1회)

<전황> 제44회는 초반 신진수의 홈런과 심승훈 김성욱의 2루타 등으로 앞서 나갔다.

제39회는 5회초 장두용 이중운의 연타와 7번 정호연의 희생타, 이상기의 적시타 등으로 3점을 보태 역전극을 연출했고 7회 이중운의 3루타와 이승기의 희생타로 1점을 추가, 승리했다.

제22·42회 황금용마기 쟁취

제30회 기별야구대회(98 부산시리즈) 중년 우승 15·20회 합동팀

준우승 33, 39회... MVP 김교철(22회)·이동기(42회) 차지

11월 1일 경남고구장에서 폐막된 동창회장기 쟁탈 제30회 기별야구대회(98 부산시리즈) 결승전에서 장년부 제22회와 청년부 제42회가 각각 제33회와 제39회를 꺾고 패권을 쟁취, 대망의 황금용마를 품에 안았다.

중년부는 제15·20회 합동팀이 제16·19회팀의 완강한 저항을 뿌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최우수선수상은 김교철(22회·장년) 이동기(42회·청년)이, 지도상은 김진영(22회·장년) 박광물(42회·청년)이 수상했다.

이날 장년부 경우 제22회는 콘트롤이 절묘한 에이스 김교철을 앞세워 막강 제33회를 7안타 6실점으로 막고 최만철 장성덕 이민성의 적시타 등과 4회 이대섭의 만루 홈런을 묶어 13-6 대승했다.

청년부 경우 3회5점 뒤진 제42회는 박광물 2타점 2루타와 송정렬 김병재의 적시타 등으로 5점을 따라 잡았다. 이어 4회7점 5회5점 6회3점을 더 낚아 승세를 굳혔다.

제39회는 1, 2회 이종운의 연타석 2루타, 이승기의 적시타로 6점을 선취한 후 4회5점 5회7점을 건져 기세를 펼쳤다. 그러나 7회초 제42회 투수 박일수가 타선을 완전 봉쇄함으로써 18-20으로 우승을 놓쳤다.

한편 중년부 경우 제15·20회 합동팀은 제16·19회팀과 접전 끝에 3

-2 신승했다. 장년·청년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장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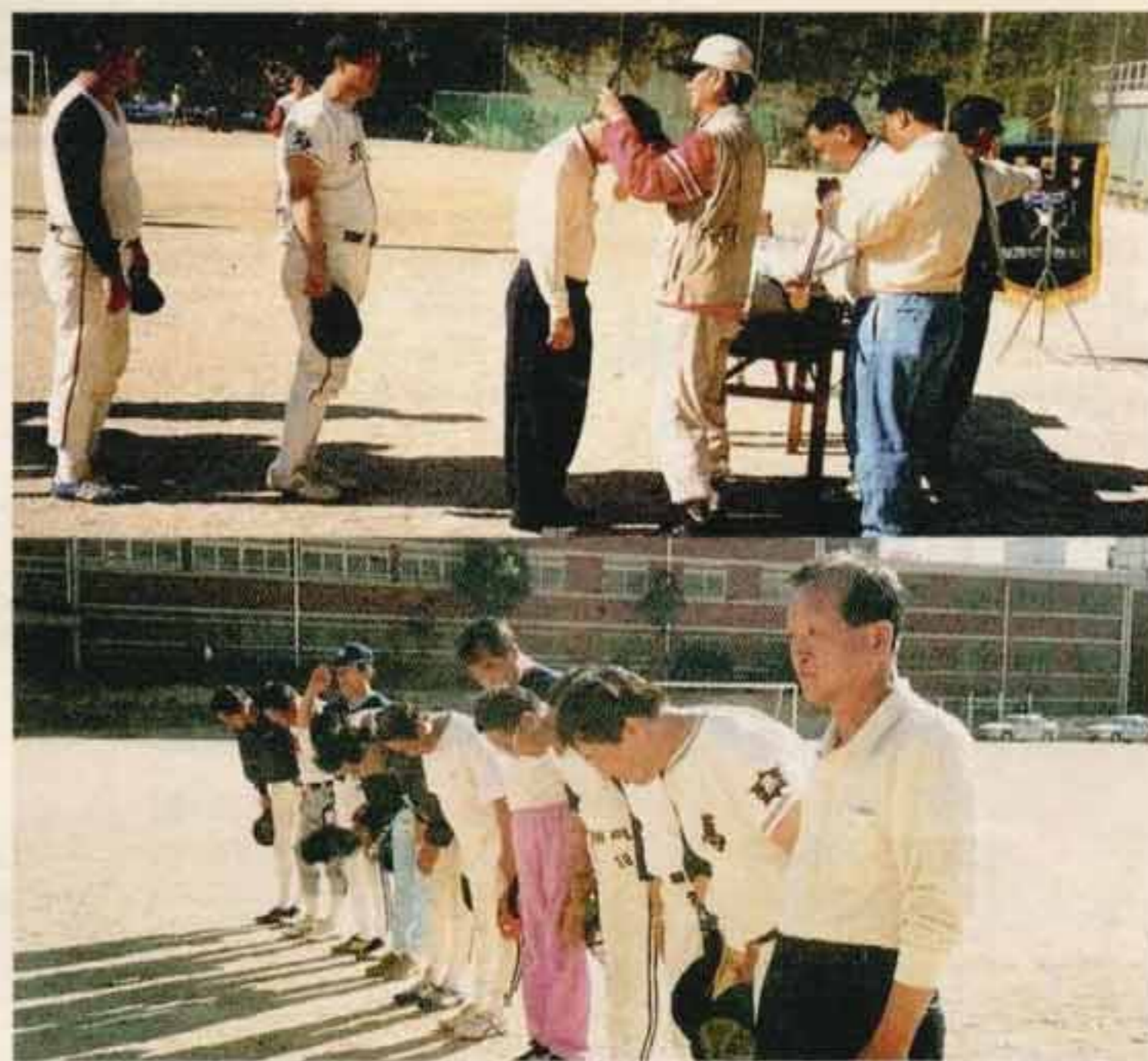
- ▲우승: 제22회
- ▲준우승: 제33회
- ▲최우수선수상: 김교철(22회)
- ▲최우수투수상: 김승규(22회)
- ▲지도상: 김진영(22회)
- ▲수훈상: 김종인(33회)
- ▲타격상: 1위 최우현(22회) 2위 김효섭(33회) 3위 김종인(33회)
- ▲감투상: 최만철(22회) 황규태(33회)
- ▲미기상: 장성덕(22회) 김용만(33회)
- ▲인기상: 장성만(22회) 김재선(33회)

청년부

- ▲우승: 제42회
- ▲준우승: 제39회
- ▲최우수선수상: 이동기(42회)
- ▲최우수투수상: 이영환(42회)
- ▲지도상: 박광물(42회)
- ▲수훈상: 서동규(39회)
- ▲타격상: 1위 신일호(42회) 2위 이종운(39회) 3위 박광물(42회)
- ▲감투상: 정호년(39회) 위성광(42회)
- ▲미기상: 정순환(39회) 권기범(42회)
- ▲인기상: 장두용(39회)
- ▲공로상: 전광렬(44회)



제24회 재경 용마테니스대회 경기장면.



11월 1일 경남고구장에서 폐막된 제30회 기별야구대회 시상식에서 장년부 우승을 차지한 제22회팀이 우승기와 개인대상을 받고 있다(위). 사진 아래는 우승한 제22회 선수들이 관중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재경27회 용마테니스 우승

준우승 28회 A·부부조 우승 허철구(25회)조

제24회 용마테니스대회가 10월 11일 오전 서울 장충테니스코트에서 1백 30여 동문·가족들이 참석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24회재경동기회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서 제27회가 단체상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앞서 기념식에서는 이상진용마테니스회장(16회·국방연구원)은 인사말을 통해 『선배가 함께 즐기는 당당한 모습의 대회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

安又萬 재경회장(10회·전 법무부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동호인대회의 활성화는 동창회가 지향하는 바람

직한 참모습』이라고 말했다.

대회를 주관한 제24회 정영덕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마음껏 하루를 즐겨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규백고문(7회) 축사와 우성하심판위원장(20회)의 경기규칙 설명이 있은 후 경기를 시작했다. 이날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단체상

- ▲우승: 제27회
- ▲준우승: 제28회 A팀
- 혼합복식상(부부팀)
- ▲우승: 허철구(25회) 부부
- ▲준우승: 구영곤(18회) 부부
- ▲최우수선수상: 이재룡(27회).

동창회보 광고협찬 안내

대기업체와 달리 중소기업체는 우수한 기술과 상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광고매체들의 높은 광고비용 때문에 적극적인 홍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년에 10번 발행되고 있는 동창회보는 전국, 해외지역에 있는 동문들에게 배포되기 때문에 높은 광고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동문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크기 및 금액
8cm×24cm(40만원), 8cm×12cm(20만원)
- 내용:
·업체소개·주요 취급품목·대표자명(사진 포함)
·연락처·기타 알리고 싶은 사항
- 보내실 곳
부산시 중구 부평동 4가 42-3 골든O/T 411호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전화(051)245-7551~2
팩스(051)245-7550



OTS YOUNGHW 반도체 제조장비 MAKER
영화OTS제조(주)
代表理事 安敏赫

Since 1975, Manufacturer & Exporter
☎152-053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30-24
TEL:02-856-1928/FAX:02-868-6709
http://www.younghwa.com

-제 조 품 목-

- 자동 라미네이팅기
- 수동 라미네이팅기
- 양면노광기(5K·7K·8K)
- 평행광 노광기
- Roll to Roll Circuit Line
- FA Factory System

理事 鄭 点 得(28回)

아스파라긴,
올리고당,
벌꿀 함유



21회 최민석